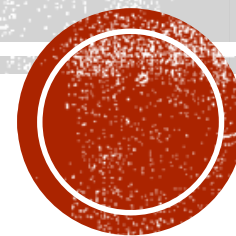


# 자기 소개서 작성 - 세부사항



# 기업 별 자기 소개서 특징

1. 대기업 : 대기업 채용은 언제나 원하는 인재상이 정확히 정해져 있음.
  1. 회사의 기본 인재상 (삼성 : 한국적인 성향에 진취적 성장욕, 현대 : 조직에 충성, LG : 유순한 성격, CJ : 당장 뽑아먹기 좋은 인재, SK(통신) : 도전과 극복, SK(정유,건설) : 조직친화도와 글로벌)
  2. 이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상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함.
2. 중견기업 : 조직 충성도가 1순위, 스펙을 많이 보는 경향, 정해진 일을 잘, 빠르게, 많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1. 주로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는 내가 뽑을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3. 스타트업 : 기업의 비전에 뜻을 같이 하는 인재, 알아서 잘 크는 인재, 자기주도적인 인재
  1. 인사 담당자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운영직무 담당자와 현업 담당자가 함께 선발한다.



# 자기 소개서의 분량

1. 신입의 경우 2 Pages
2. 경력이 있는 경우 3Pages가 적당하다.
  1. 너무 많은 분량은 인사 담당자의 피로도를 상승시킴.
  2. 적을 내용이 많다고 해도 압축해서 간결하게 서술하는 편이 간단하다.
  3. 소제목을 달아주는 편이 좋지만, 소제목이 많아지면 내용이 산만해지고, 빈 공간 낭비가 많아 내용이 줄어든다.
3. 질문 1개에 대한 답변 분량은 15줄 내외
4. 질문 1개에 대한 답변에 복수의 소재/에피소드를 사용할 경우 소재 1개당 10줄 내외로 하는 편이 좋다.
  1. ex: 관련 직무 경험은? -> A사 인턴 경험 3개월(10줄), B사 사원 3년 경험(10줄)
  2. 대학 전공 외의 직무를 택하게 된 이유 -> 전공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를 집행할 기술을 익히고 싶었다(15줄)



# 자기소개서의 구성

## 기승 전결

성장 – 경험 – 현재 – 포부

가장 기본적인 형태, 갑작스레 마감 임박한 공고를 발견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 놓아야 함.

---

저와 나이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제 친오빠는 지금 모 회사에서 서버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오빠의 영향으로 컴퓨터를 친숙하게 접해왔고, 오빠가 고등학교를 들어가 바빠지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집에 남겨진 컴퓨터는 맛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저에게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집에 있던 프로그래밍 책을 읽어보고, 오빠에게 배워가며 익힌 컴퓨터는 지금까지도 저의 가장 좋은 취미였습니다. 여자가 이과를 진학하는 것을 꺼리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문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



# 자기소개서의 구성 -2

## 경험 집중

20대 중반(대학 졸업 후)의 경험만 서술

경력 보유자 용

기존 직장과 현재 직장의 연관성이 크게 없을 때

기계 공학과를 졸업한 저는 자연스럽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중공업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1000MW급 화력발전소이자 역대 최대 공사비로 진행되었던 XXX현장에서 가스터빈 파트를 담당하게 된 저는 생경했던 중공업계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용접 기술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면해석과 역학 계산만으로도 제 최소한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었지만, 납품받은 부품을 검수하고, 현장에서의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을 제 손으로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제가 담당했던 6년 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업계전체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조를 넘겼던 수주액은 수천억대로 떨어졌고, 제조업 분야 전체의 비전이 점점 상실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UX/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부인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



# 자기소개서의 구성 -3

## 직무 집중

20대의 경험만 서술(대학 포함)

유관 경력 보유자 용

서버 개발 -> 앱개발, 시디 -> UX/UI 디자인, 광고 -> 디지털 마케터 등

대학교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저는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 관련이라면 제 전공과 무관한 것이라도 각종 공모전이나 동료들과의 팀프로젝트를 자주 참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xx에서 개최한 앱 개발 대회에 친구들과 출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진로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대회에서 oo한 앱을 개발하여 동상을 수상한 저는 디지털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에 빠져들었고, 졸업 후 첫 직장도, 웹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회사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xx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며 제 전문성도 성장시킬 수 있던 나날이었지만, 제가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된 앱 디자인 만이 갖는 매력에는 어딘가 부족한 면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UI 디자이너로서 저에게 필요한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UI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



# 자기소개서의 구성 -4

## 회사 집중

내가 왜 꼭 이 회사를 가야만 하는지, 회사 맞춤형 자기소개서

유관 경험이나 경력이 전무한 경우

신입의 경우 ‘기승전결’형을 베이스로 ‘회사집중’형을 지원할 때마다 작성

---

토스는 평소 IT나 스타트업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던 저에게 처음으로 디지털 라이프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애플입니다. 이제까지 당연히 불편을 감수하면서 써와야 했던 은행업무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해왔던 송금 등이 약간의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극복이 가능한 문제였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 낸 비바 리퍼블리카는 저에게 혁신을 실현시키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문학을 전공한 저에게 비바 리퍼블리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선 제가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할 수 있을 일이 무엇 인지를 고민해보았고, xxxx나 oooo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현재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고, 비바 리퍼블리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마케팅을 배워서 돕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저없이 패스트캠퍼스의 디지털 마케팅 과정을 찾아 수강하였습니다. ……

---



# 자기소개서 검토 -1

논리  
적인  
가?

질문이 일관된 흐름에 따라 배치 되었는가

각각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산발적으로 담겨있진 않은가?





# 자기소개서 검토 -2

## 직무 중심 인가

직무 관련 내용이 70%, 직무 외 내용이 30%되어야 함.

직무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서 스토리가 있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움.

내가 뭘하고 싶은지, 왜 그것을 하고 싶게 되었는지, 이 회사에서 어떤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를 실천하는 길인지가 명확해야만 가능함.



#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인사 담당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왜 A/B 테스트를 했어야 했나? 왜 RestFul API를 채택하였는가? 왜 Naive-Bayes Model을 채택했어야 했나? 왜 여기에서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가? 왜 그때 출판사로 입사했는가? 왜 퇴사를 했는가?  
왜 기획쪽이 더 좋은가? 왜? 왜?



질문 받겠습니다.

Q&A

